월요광장

‘도시 복지’로 가는 길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복지란 행복을 누리며 잘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는 생활 속 모든 부분에 이어져 있다. 사회 복지, 주거 복지, 교육 복지 등 우리 실생활의 상당 부분에 복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복지’란 현대인 삶을 담고 있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찾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집적해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경관·교통·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집행되면서 도시는 점점 성장·발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 분야별 상호 소통과 협력,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복 계획으로 인한 예산 낭비, 시간 지연 등의 문제점을 낳게 된다. 또 각 계획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작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계획 없는 개발’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도시 복지의 전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이다. 광주는 학동과 화정동의 건축물 철거 및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명 피해를 낳는 대형 사고가 있었다. 수도권은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거민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했다. 비단 이런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도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사회관계망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5곳을 BBC에서 발표했다. 1위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2위가 캐나다의 토론토, 3위가 싱가포르, 4위가 호주 시드니, 5위가 일본 도쿄의 순이었다. 1위인 코펜하겐은 환경 안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한 도시 지수는 부패방지 및 안전한 도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덴마크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시민과 정부가 서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2~5위까지 도시들도 스마트시티 전략이나 보행자 친화성 교통 네트워크,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 전략 등을 시행하며 순위 안에 들었다.

두 번째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가 주거 복지다. 현 정부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 모두 부동산·주택 문제로 인해 실각하거나 정권을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중요한 정책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주택을, 특히 아파트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이를 투기·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기 세력에 대한 정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실패하고 오히려 집값만 올려놨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시장친화적인 정책만으로 이를 만회하려 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앞으로 인구의 정체 및 감소로 인해 앞으로 지어질 공동 주택의 과잉 공급에 대한 경고 시그널이 울리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신호 때문에 주거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 공급은 멈출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거 공급은 보다 세밀하게 수요를 반영해 진행해야 한다. 도시 재생과의 연계, 빈집 활용 방안, 수직과 수평 증축 리모델링, 그리고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계획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거 공급과 도시 재생, 빈집 활용 등에 대한 해법을 논의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까지 모두 협력해야 한다. 행정 부서는 각 부서가 자료나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지자체나 공사와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어떤 지자체도 하지 않았고,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2021년 12월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도시 브랜드 가치 평가 결과를 보면 국내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의 도시 브랜드는 서울, 부산, 인천, 세종,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의 순이었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광주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도시 브랜드의 근간은 도시 정체성인데, 모든 공간에 그저 아파트만 짓는 것이 과연 광주다운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급하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인본주의 도시, 광주는 도시 복지의 장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주거 복지가 보장되는 도시여야 한다.

수필의 향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이별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꾸벅 인사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라고? 몇 번을 되묻곤 깜짝 놀랐다. 그가 내민 손을 잡을지 말지 망설였다. 처음엔 어색했으나 이내 따뜻했다. 시골집을 고치고 있었다. 약간의 설계 변경과 자잘한 도움은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잘 지원해 준다 싶어 감사를 표하고 싶었는데 그였다. 나는 녀석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 귀가하면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이웃집 친구 아들이다. 친구는 그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학창 시절엔 패싸움이 일상이었고 사춘기 때는 여자들을 괴롭혔다. 자라서는 경마나 도박에 빠져 늘 고주망태였다. 녀석이 입대하고 며칠 뒤 친구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뒤 녀석 소식은 영영 끊어지고 말았다. 가끔 친구를 생각하면 녀석에 대한 미움이 치밀었다.

주변 평판을 들어보니 놀랍게 호평이 많았다. 지난 삶을 성찰하고 두 배 세 배로 바르게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했다. 어머니에게도 각별하단다.

폐인이다시피 한 녀석을 누가 바뀌게 했을까. 아니 녀석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궁금했다. 기적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간혹 학창 시절 악당으로 기억하는 친구, 마을에서 망나니짓을 일삼던 이나 양아치처럼 굴던 사람이 개과천선한 경우를 보는 때가 있다. 그런데도 그 사람 뒷모습에는 그의 과거가 어른거려 좀처럼 그에 대한 시각이 변하지 않았다. 그건 어쩌면 내 기억이나 시각이 강렬하거나 지나치게 내 중심적이어서 나를 어떤 틀 안에 가두고 보기 때문인지 모른다. 일종의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인지 편향(Illusion of Knowledge) 상태. 잘 안다는 착각, 상대방은 예전 그대로가 아닌데 나는 상대방을 예전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내 착각 말이다.

이쯤 되면 슬슬 나를 돌아봐야 한다. 내 고정 관념과 편견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나만 옳다고 우기는 것은 아집이자 오만이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지만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든다지 않던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바꾸는 일이다. 나를 나로부터 떼어내어 저만치 세워놓고 바라본다면 의외로 참 나를 볼 수 있다. 때때로 타인의 시각으로 ‘보이는 자아’와 지금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자아’를 분리하여 볼 필요가 없지 않다.

나의 관점에서 벗어날 때, 세상은 훨씬 넓고 크게 보인다. 중년 남자들은 마음에 산과 강 하나씩 품고 산다.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에선 훌훌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한다. 실상 마음에 욕심을 버리면 지금 사는 장소가 천국이고 심산유곡인 점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 관념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늘 나일 경우가 많다.

나를 버리는, 자아와 헤어지는 일은 힘이 든다. 슬며시 가랑비에 옷이 젖듯 나와 이별하고 타인의 생각, 새로운 세상에 스며들 듯 마음을 내밀어 보자. 나를 버리고 네가 되어 보고 나무가 되어 보고 산이 되어도 본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이별, 나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다잡아 본다.

열매를 위해 꽃이 지듯, 새봄을 위해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를 버린다. 죽을힘을 다해 강물을 오르는 은어는 살기보다 죽기 위해 오른다. 자기를 버릴 때, 비로소 은어는 새끼 은어로 자신의 생을 잇고 새로운 자기로 태어난다.

나를 훌훌 떠나보낸다. 새 날개를 얻기 위해 민들레 홀씨처럼 훌훌 내 집착 내 관념으로부터 나를 떠나보낸다. 그렇게 나와 헤어져 새로운 나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가장 힘든 이별, 그때가 지금이다.

기 고

닉슨과 커피 한 잔, 펠로시와 전화 한 통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2020년 신년 의회 연설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이 대통령 연설문을 짝짝 찢는 퍼포먼스가 전 세계 방송에서 화제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내민 악수를 거절한데 대한 복수였다. 트럼프는 “대통령 문서를 찢은 것은 위법 행위”라며 노발대발했다. 펠로시 하원의원은 미국 정계에서 ‘구찌 장갑을 낀 철 주먹’이란 별명으로, 전투력 최강의 국회의원으로 장기간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1987년 하원의원 당선 이후, 반중·반북 성향으로, 의회 내의 1979년 수교 이후 미중 전략적 협력 노선을 미중 경쟁으로 교체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1966년 낙선한 닉슨은 “끝장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닉슨은 1966년 프랑스, 일본, 동남아 등에서 드골 대통령, 사토 에이사쿠 총리 등으로부터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당시 이동원 외교장관은 닉슨과 면담을 건의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끝난 사람인데”라며 청와대에서 커피 한 잔만을 했다. 입장이 난처해서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와 이동원 장관은 저녁에서 장관들을 초대한 만찬을 추진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저녁식사를 하면서 또다시 닉슨의 체면을 구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동원은 닉슨에게 기생집에 가는 것을 제안하였지만, 브라운 대사는 다음날 일정을 핑계로 반대하였다.

1968년 닉슨은 제 3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재임기간 1972년 오키나와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일구어 냈다. 드골 임기 당시 1966년 나토(NATO) 동맹에서 탈퇴하여, 미국 정치인들이 그를 과대망상 환자로 치부했지만, 닉슨은 회고록에서 드골을 강한 의지의 영웅으로 묘사했다. 닉슨 취임 이후 외교 라인을 총동원하여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지만 6개월간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 1968년 8월 방미 기간 박정희는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닉슨을 만나는 수치를 겪었다. 이동원 회고록에는 박정희는 당시 시시껄렁한 시골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하는 수치를 보이며, 속국의 제왕 대접을 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내가 아무리 1966년 닉슨이 방문했을 때 섭섭하게 대했기로서니 너무한 것 아니오”라고 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닉슨은 주한 미군 철군을 추진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한 미군 철군 문제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키신저 보좌관은 주은래 총리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에 대하여, 자위대 간부가 국군을 만나고 있다는 기밀까지 설명해 주었다. 물론 이러한 심각한 안보 문제에 대하여 주은래는 김일성을 직접 만나서 전달해 주었다. 한반도 안보를 한국 지도자를 패싱하고 토론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동원은 “닉슨의 한국 방문 1박 2일은 우리 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그 1박 2일이 주한 미군의 첫 철수를 낳았고, 그것은 박대통령에게 위기의식을 안겨줘 이후 ‘10월 유신’ ‘핵개발’ 등 자신의 불안을 보전해 줄 악수를 두게 됐다”고 회고했다.

8월 초 낸시 펠로시의 싱가폴·타이완·한국·일본 방문 기간, 각국 지도자들은 일정을 변경하며 최상의 외교 행사를 개최하였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아시아 방문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그녀와 직접 면담하지 않은 유일한 지도자’라는 기사가 국제적 화제가 되었다. 보수 신문들의 비판이 거세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처음 휴가 기간이라고 해명했고, 곧바로 최영범 홍보수석이 ‘총체적으로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의 파장으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윤 대통령의 대미 외교를 칭찬하였고, 서방의 이코노미스트 등에서 상당한 비판적인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년 넘게 집요하게 중국을 공격하는 낸시 펠로시에 대하여 중국인들은 ‘늙은 마녀’로 부르고 있다. 의회의 한국 방문에는 한반도 평화에 발벗고 나섰던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 앤디 김 등 아시아태평양 의원단이 포진해 있었다. 그러나 펠로시 방문 10일 후 미국 의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iton Act)를 통과시켰다. 한국 전기 자동차만 불이익을 보는 구조에 대하여 친한파 의원들은 이전과 달리 어떤 귀띔도 해주지 않았다.

社說

역대 최강 태풍 ‘힌남노’ 북상 빈틈없는 대비를

사상 최강의 태풍 ‘힌남노’가 막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20년 전 광주·전남에도 엄청난 상처를 안겼던 ‘루사’나 이듬해 ‘매미’보다 강한 ‘초강력’ 태풍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힌남노는 오늘 오전 9시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460㎞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강도는 중-강-매우 강-초강력의 4단계로 나뉘는데, 이때 중심 기압은 920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54m로 ‘초강력’일 것으로 분석된다. 힌남노는 내일 오전 9시 부산 북서쪽 20㎞ 지점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현재 전망대로라면 가장 강한 위력으로 상륙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은 바람이 초속 25m 이상으로 부는 ‘폭풍 반경’에 들겠다.

광주·전남의 경우 강풍과 비가 몰아치는 오늘과 내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제 오후부터 해남·완도·진도에는 호우주의보가, 여수·순천·고흥 등 12곳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무등산·월출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고, 전남 여객선 22개 항로도 운항이 중단됐다.

태풍은 ‘매우 강’ 수준만 돼도 사람이나 커다란 돌, 지붕이 날아갈 만큼 위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수확기와 추석 대목을 앞둔 농어민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태풍이 오기 전 농경지 배수로와 지주 시설을 정비하고 선박이나 어망·어구는 단단히 묶어야 한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산사태 위험 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틀은 X자 테이핑보다 틈새를 막아서 유리창 전체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차량은 저지대나 하천을 피하고 안전한 곳에 옮겨 두어야 한다. 태풍이 시작됐을 때는 외출도 삼가야 할 것이다.

시늉 그친 지역 공공기관 5·18 교육 강화해야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폄훼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공기관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 교육청, 시도 경찰청 등 여섯 개 공공기관의 5·18 교육 과정을 조사한 결과다.

광주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두 개, 광주시에서 한 개 등 총 세 개의 5·18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 교육청의 교사 대상 95개 집합 교육 중 5·18 교육은 ‘호남권 역사 교육 공동 연수’ 한 개에 그쳤다. 특히 교사를 상대로 한 집합·원격 교육 410여 개 중 두 개만이 5·18 관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38개 직무 교육 공통 과목 중 5·18 교육 과정은 ‘5·18 광주를 넘어 세계로’ 한 개뿐이었다. 광주 경찰은 부서별 인권 교육 차원에서 5·18을 다룰 뿐 정식 교육 프로그램은 없었다.

전남 지역 공공 분야 5·18 교육은 더 미미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사 대상 104개 직무 연수 중 한 개 과목에서 5·18 사적지 탐방을 하는 데 그쳤다.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은 조사 기간 공식적인 5·18 관련 교육이 단 한 개도 없었다.

주목할 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18 교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5·18에 대해 가르치고 관련 법을 집행해야 할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시늉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오월 시민 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직 사회도 관련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분야 직무 교육에 5·18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의(義)와 불의(不義)

영화 ‘한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는 “의(義)와 불의(不義)의 대결”이라는 이순신의 말이다. 포로로 잡힌 왜적의 장수 ‘준사’는 목숨을 걸고 부하를 지키는 이순신의 행위에 감동한다. 그는 이순신에게 “이 전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이순신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의(義)와 불의(不義)의 대결”이라고 답한다.

영화 속 선조 임금은 한양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오른 직후였다. 풍전등화 속에서 백성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순신과 수군을 도와 마침내 백척간두의 조선을 구하기에 이른다.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한 행위가 바로 의(義)였던 것이다.

반면 왜군은 명나라로 진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에게 길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린다. 그들은 대륙 정벌의 교두보를 얻기 위해 조선을 침탈했으며 무고한 백성을 무참히 살육했다. 한마디로 불의함의 극치였다. 그럼에도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은 종묘사직의 수호와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한다. 당파 싸움으로 날을 새던 이들에게선 조금의 의(義)도 찾을 수 없었다.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영화 ‘한산’의 명대사를 인용했다. 이 전 대표는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추진을 두고 SNS에 “결국 의(義)와 불의(不義)의 싸움이 되어 간다.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고 일갈했다. 즉 당헌과 당규 개정을 매개로 새 비대위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불의’라고 규정한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과 노동자들이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취약계층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영화 ‘한산’에서 이순신과 수군은 오로지 백성과 조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작금의 시대 진정한 의(義)의 길은 민생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의가 만연한 오늘의 정치권은 이순신이 지향했던 ‘의’(義)에는 애써 눈을 감는 것 같다.

/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